

# 사설

## ‘안방 부처님’ 살리자

국제금융의 한파가 불교계에도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불자들은 더욱 가슴이 아프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총체적 경제 위기가 몰아닥친 것은 제1차적으로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이다. 정경유착과 각종 부정부패의 그릇된 유산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마구 쓰러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IMF 파동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부도사태가 줄지어 일어나고, 수출차질, 물가 폭등, 외환위기가 계속되어 우리경제의 기반이 와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으려는 금융회사들의 돈줄까지 끊어 기업자금이 극심해져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흑자기업들도 위정거리고 있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3월에 가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달성이 이루어지면 기업 부도사태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 불교계의 유일한 영성매체인 불교텔레비전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3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성방송을 통한 포교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불교텔레비전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그동안 불교텔레비전이 ‘안방 부처님’으로서 불교의 포교를 중심으로 한 언론매체로서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안방에서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매일 예불을 올리며, 부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포교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불자들에게는 불교의 생활화·현대화·과학화를 통해 올바른 부처님 법을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불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는 쉽게 불교를 배우고 불교계 소식을 접함으로써 포교의 기반이 되었다.

이제 불교텔레비전이 포교의 혁명을 일으킨지 3년도 채 안되어 IMF 한파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다른 기업들처럼 자체구조조정을 과감히 하여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60%의 감원 감량으로 버티려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불자들이 불교텔레비전의 현실적 고통을 분담하자. 영성포교의 유일한 언론매체를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려보자. 우리 2천만 불자 모두가 남의 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일임을 인식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면 무엇이든 살릴 수 있다.

둘째, 불교계 지도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원력을 세우고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이 단결하여 불교텔레비전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종단간에 또는 단체간에 다소 견해의 차이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수신제가를 위해 승속을 막론하고 통쳐야 한다. 구심점이 흔들리면 불교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종단을 이끌고 있는 불교계 원로 중진스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불교텔레비전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이다.

셋째, 불교텔레비전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숭신수범하여 고통을 인내하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불교계에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인적 불적구조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혁신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사심을 갖지 말고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 처리하고, 공익성 공정성 투명성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IMF 한파 기도로 이기자”

## 수덕사 등 전국사찰 철야정진법회 등 잇달아

IMF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기원법회와 철야정진법회가 잇따르고 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매월 15일(음력) 철야정진법회를 경제위기 극복에 맞춰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불교연합회와 춘천 승가회도 6일 춘천 배스타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밖에도 제주불교총연합회, 태고종 강원교구 등도 신년하례법회를 통해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불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법장)는 주지스님부터 총림대중과 신도들이 국민극복을 발원했다. 매일 음력 초하루와 보름을 철야정진으로 경제한파를 수행력으로 물리치는 기원과 참회를 하고 있다.

선달 보름인 12일 밤10시 수덕사 황하정주에는 50여명의 대종사님들과 행자 및 직장인·보살, 초등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선공간을 가득 매웠다. 심술긋은 동장군이 물러온 탓인지 두터운 방한복 차림의 신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참선을 할 때는 신심을 돈독히 하고 대불심과 대의정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지 법장스님의 참선자세에 대한 지도법문에 이어 일제히 입정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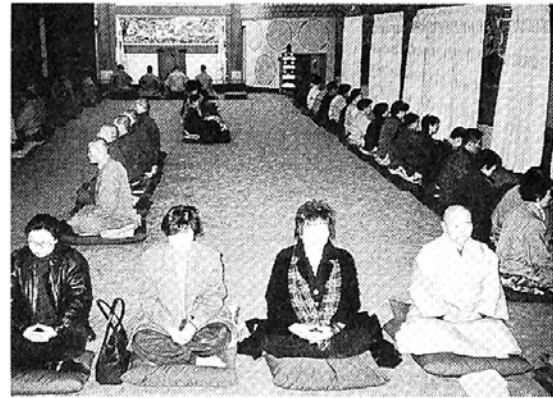
이날 “수덕사는 수덕사요, 또한 수덕사는 수덕사가 아니라”는 화두가 주어졌으며 다음날 새벽3시까지 50분 정진에 10분 경행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선에 익숙하지 않은 타산지석여지는 하리를 끝내세우는 거사와 50분이 힘에 겨운 듯 눈치를 살피며 문밖으로 나가는 초등학생도 보였다.

또 여기저기서 ‘제품하나 마음대로 나누기도 힘들군’ ‘마음이 고요해져서 좋네’ 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주지 법장스님도 입정부터 회향까지 신도들과 함께 정진하며 휴식시간마다 힘들어 하는 불자들을 격려해 훈훈한 승속일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정진에 참석한 원진관(53·충남 예산)씨는 “경제 한파로 직장에서 광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다”며 “철야정진은 모 든 상념을 떨칠 수 있어 좋았다”고 수행의 소감을 밝혔다. 이윽고 회향을 알리는 죽비소리에 참석자들은 철야정진을 해냈다는 성취감에 즐거워했다.

(수덕사=김주일 기자)



IMF한파를 참선수행 철야정진으로 이기자는 발원으로 수덕사는 주지스님부터 총림대중 전체와 신도들 1백여명이 초하루 보름마다 음행정진하고 있다.

## 동국대 1백억대 건물기증 ‘거절’

### 임대보증금 등 40억 부담... 예산운영 애로

구립 29일 밝힌 권이재씨의 1백억원대 건물 기증의사와 관련해 동국대는 7일 임원간담회를 열고 현재 학교여건상 이 건물을 기증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했으나 기증자가 원하는 한방병원 건립의 경우 대학부속병원으로서의 규모나 조건 등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이 건물이 안고 있는 임대 및 전세 보증금과 시설 리스비용 등 40억여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돼 학교예산 운영상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 BBS사장 재고해야

### 전불련 8일 성명발표

전국불교운동연합(회장 지선스님)은 8일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방송 신임 사장으로 추천한 성낙승씨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불련은 성명서를 통해 불교방송 사장은 방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불교방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번 성씨의 추천은 불교방송 사장 추천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 승병욱씨 보석석방

불교방송 공공취청사건의 피의자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승병욱씨(前 불교방송 상무)가 구립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 “포교사연수교육 수련회로 대체”

### 조계종 포교원에 포교사단 보고서

조계종포교원이 매년 두차례 개최하고 있는 포교사 연수교육에 대해 해당 포교사들은 포교사 자격경신의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수교육을 소양향양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련회로 대체하길 바라고 있다.

조계종포교사단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다섯차례 실시한 포교사 간담회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8일 포교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단에 대한 포교사들의 불신이

## 종교별 사업추진

### 종교지도자협 분과위 구성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장 원주스님)는 구립27일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97년 업무 및 재정을 결산하고 98년 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98년도부터 각 종교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과위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불교는 종교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연대사업, 천주교는 사회봉사사업, 개신교는 청소년 선도 관련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유교는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원불교는 종교간의 화합을 위한 사업, 천도교는 통일기반 구축사업, 민족종교협의회는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동국대 입시 666대 1

### 승가대 3개학과 미달

고교 졸업대학들의 98년도 정시모집 지원현황결과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평균 4.96대1, 경주캠퍼스 8.37대1, 위덕대학교 3.8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중앙승가대학의 경우 4개학과중 3개학과가 미달했다.

이중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부 일반의 경우 50명 모집에 1백41명이 지원 평균 2.82대1을, 스님의 경우 17명 모집에 25명이 지원 1.47대1의 경쟁률을,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일반은 40명 모집에 108명이 지원 2.7대1, 스님은 20명 모집에 27명이 지원 1.35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또 위덕대 불교학과는 31명 모집에 70명이 지원 2.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앙승가대의 경우 사회복지학과(30)만 정원을 채웠을 뿐 불교·역경·포교사회 3개학과는 정원(30)에 미달해 평균경쟁률 0.59대1을 기록했다. 중앙승가대는 2월9일 추가모집 시험을 실시한다.

크며, 원인은 포교사에 관한 정책부재와 일관성의 결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포교사의 종단 내 위상정립, 통일된 복장의 제정 등을 통해 포교사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연수교육을 포교계층별·주제별로 실시하고, 우수포교사 시상등을 통해 포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포교원에 건의했다. 연수교육과 관련, 포교사단은 올 상반기중 포교사들의 활동분야별 조직편제가 완료되면 1백2일 이상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만평

현대만평



“제2공장 오픈도 기대하겠지요”

## 문경 김용사에 원인불명 화재

### 설선당 등 3개동 전소

경북 문경 김용사(주지 자광)에 구립 30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설선당(124평)과 누각(33평) 요사채(57평) 등 3동의 건물이 전소했다.

화재는 30일 밤 11시 50분경 설선당에서 시작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3개 건물로 옮겨 붙었다. 긴급출동한 문경 상주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지역주민이 진화에 나서 불길은 2시간 30여분만에 잡혔다.

전소된 설선당은 1백여년전에 지어진 대형강당으로 목조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김용사 주지 자광스님은 화재의 원인과 관련 “30일 오후 2시경 군불을 지핀 후 아궁이에는 더이상 불을 넣지 않았다. 때문에 심화로 단정지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찰청 소속 화재감식반도 정밀 검사를 통해 화인을 조사 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동화사 성보전시관 건립

### 승병운동 유물등 전시... 5월경 기공

조계종 제9교구본사 대구 동화사(주지 무공)에 승병운동과 관련된 각종 유물들이 보존 전시되는 성보전시관이 건립된다.

동화사는 5일 교구총회를 열고 총 599평의 성보전시관을 오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기공,

내년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동화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영남승병을 총지휘하던 영남도총섭이었던 사할의 이미지를 특화시켜 호국불교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승병관련 유물전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 알숨 Alsom은 수맥·전자파 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

알루미늄 단열재 생산 15년의 경력과 기술로 신제품 개발

고순도의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최초로 개발된 수맥·전자파 차단 단열방습지 알숨 Alsom은 간편한 시공으로 수맥·전자파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단열과 습기, 독성등을 동시에 차단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냉·난방의 열효율을 한층높여 연료비를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알숨 1000**

- 수맥파의 가공할 위험 차단효과!
- 전자유해파의 피해 차단효과!
- 뛰어난 열전도·반사율로 경이적인 단열효과!

**용도** : 신축주택, 아파트의 난방파이프 바닥 등 기존주택의 장판면이나 침대

**본 제품의 특성**

수맥파 차단 및 방습, 방수, 방음효과 : 순도 99.6%이상 고순도 알루미늄과 아스팔트왁스등 복합소재 사용

단 열 : 알루미늄의 뛰어난 열전도·반사율로 인한 단열

독성 차단 : 시멘트 몰타르등의 유해성분 차단

편리한 시공 : 줄무늬를 인체하여 절취가 편리하고 재질이 유연하여 사용이 간편

파격적인 가격 : 알루미늄재질 사용으로 가격저렴

**알숨 500**

- 수맥과 전자파를 동시에 차단하고 이동이 간편하며 실내에서 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매트형 제품

**용도** : 전기장판, 전기담요 상부 일반요, 침대(병원침상 등)

제조회사

**SAMMIN**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 (0345)498-5533 (대)

FAX : (0345)498-8998

**알숨 100**

단열과 방습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모든 건축물, 측사, 창고등의 바닥이나 벽체 및 천정에 사용

**전국대리점모집**